

광주·전남 농가들, 소비자와 직거래 나선다

혁신도시서 첫 상생장터...12개 친환경 농가 1000만원 매출 '푸드 어셈블리' 착안 다음 달부터 '선주문 거점방식' 판매 계획

국내 농산물 판로의 조직화, 온라인 강화가 가속화되면서 광주·전남 농가들이 스스로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일 광주·전남 12개 농가는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지구농마을 상생장터'를 열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최대 33% 할인한 가격에 내놓았다.

공공급식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에 소속된 이들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초·중·고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날 장터에 내놓은 품목은 모두 25가지로, 모두 유통자 조작을 하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은 'NON-GMO' '무농약' 농산물이었다.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남도·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는 플라미코 협동조합,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힘을 합쳐 오는 13일에도 장터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와 대면 판매를 병행했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홍보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생표고버섯과 방울토마토, 우리밀통쌀, 전통 된장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된 꾸러미A(3만5000원)와 우리밀 라면, 무농약 콩나물 등 13개를 모은

꾸러미B(4만원)는 각각 13%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해협 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국산 콩두부(450g 3000원)와 친환경 표고버섯(300g 3000원) 등도 25~33% 할인된 가격으로 매대를 채웠다.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시작해 오후 4시 끝난 판매에서는 총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표고버섯과 무농약 양파, 국산 콩두부, NON-GMO 달걀 등 절반 이상 품목이 '압판'됐다.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박상표(57) 대표는 이날 일찌감치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팔았다. 11년 전 서울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광주에 귀농한 뒤 표고버섯을 키우며 11년 연속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2년 전에는 '한국형배지 생산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 마이스터(명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역 농가들이 모여 혁신도시에서 처음 장터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어 농민들이 고무된 상태"라며 "이웃 사·도끼리 서로의 우수한 품질을 갖춘 농산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농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선주문 거점판매' 방식의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주문 접수를 진행한 뒤 특정 날짜와 장소를 잡아 '찾아가는 거점 판매'를 하는



지난 5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지구농마을 상생장터'에서 광주·전남 농산물들이 비대면 방식(드라이브 스루)으로 판매되고 있다.

게 골자다. 참여 농가들은 이번 '드라이브 스루'와 '직거래 장터' 등을 거치며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다.

이 농산물 판로를 발굴하고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 주요 온라인몰의 과일·채소 판매 수수료는 SSG 20.6%, 홈플러스 18%, 11번가 16%, 롯데 11%, 네이버·카카오 각 9%, 위메프 6.19% 등으로 알려졌다. 양국 판매 수수료도 7.5%에서 높게는 19.1%까지 올라간다.

장민영(49)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구농마을 상생장터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떠오른 '푸드 어셈블리'(Food Assembly) 시장에서 착안해 기획했다"며 "온라인 선주문을 거쳐 소비자와 생산자가 중간 유통업자 없이 직접 만나면서 농민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쉽게 재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상생장터는 1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새농업생태공원에서 펼쳐진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아지도 이제 온라인 경매 aT, 강릉축협과 시범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농산물 온라인 경매 거래실적이 전년보다 28% 증가한 2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파·감마늘·수박·만감류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축산물 경매를 시범 도입하는 등 계란 등 신규 품목 및 거래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사와 강릉축협은 지난 10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가축 경매를 시범 진행했다.

이번 경매는 생육 경매의 비대면 온라인 경매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릉축협이 경매에 내놓은 우량송아지 12마리는 총 4522만원에 낙찰됐다.

온라인 경매(eat.co.kr)는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때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경매는 판매자가 aT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미리 경매 품목의 사진·영상 등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경매에 응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사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 판매·구매자 홍보와 지자체 협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운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이번 시범경매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온라인 경매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본부, 함평서 '농업인 행복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뒷줄 오른쪽 두번째)와 나비골농협이 지난 4일 진행한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나비골농협은 지난 4일 함평군 나산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함평 해보면, 나산면, 대동면 고령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사진을 찍고 무료 검안과 돋보기 제작 등 의료지원도 펼쳤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마을별 소규모 단위 인원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이삼익 함평군수와 박서홍 농협 전남본부장, 김천국 농협 함평군지부장, 김영철 나비골농협 조합장 등도 참석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장수사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담양·월산 농협 합병 투표 가결 담양 88%·월산 89% 찬성표

담양농협은 월산농협과 합병에 대한 조합원 별 투표가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는 담양농협 2개 투표구와 월산농협 1개 투표구에서 실시됐다.

담양농협의 경우 총 조합원 2672명 중 74.2%에 해당하는 19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87.8%가 합병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월산농협은 조합원 945명 중 83.0%인 784명이 투표를 했다. 이 가운데 89.2%인 6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지역농협 합병 가결은 담양지역에서는 14년 만이다.

지난 2006년 장평농협과 대덕농협, 고서농협과 남면농협이 합쳐졌고, 이듬해에는 담양농협과 용면농협이 합병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협의 근간인 조합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농협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합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북광주농협, 장성 진원농협에 상생자금 천만원

도시농협인 북광주농협이 장성 진원농협에 도농 상생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일 북광주농협과 진원농협이 진원농협 본점에서 '2021년 도농 상생 한마음 전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과 정병철 진원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농협이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광주농협은 도농 상생자금 1000만원을 조성해 농촌농협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두 조합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구상봉(오른쪽)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지난 3일 진원농협에 도농 상생 발전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구상봉 조합장은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시농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농촌농협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